

“책과 함께 캐릭터와 놀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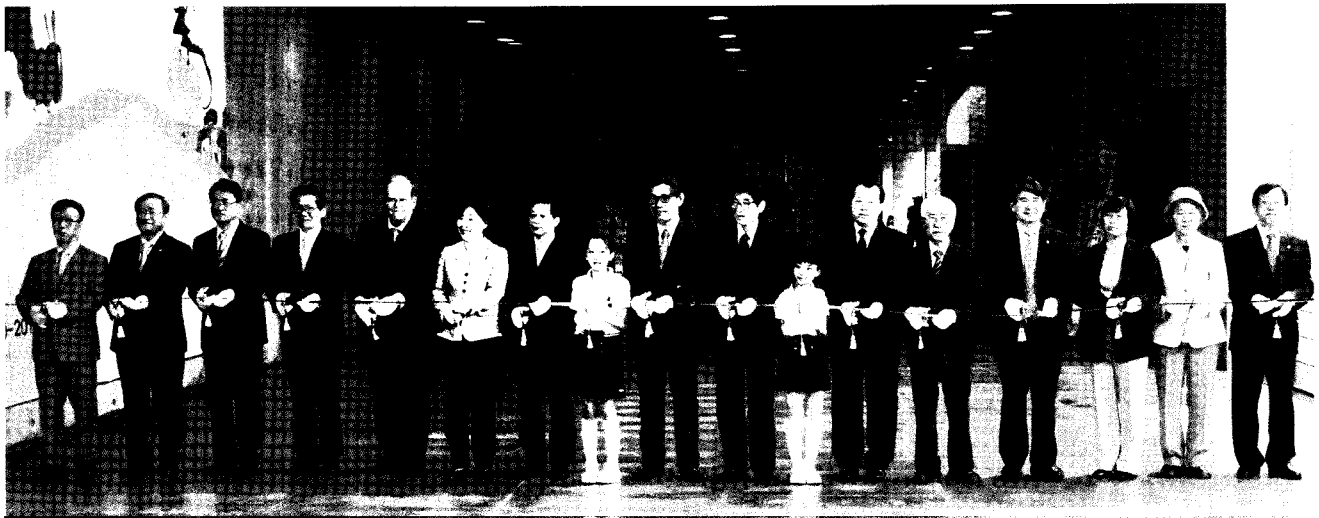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2010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제8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지난 5월 4일부터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후원과 출판문화재단과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의 주관으로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서 개최됐다. 어린이책잔치는 올해 8번째로 국내외 어린이를 매혹시킨 책 속 캐릭터와 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전시 및 ‘전감배가 그리는 세상’ 영상설치전과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룹 ‘꼭두’가 그리는 캐릭터 모음전 등 ‘캐릭터, 책 밖 세상으로’라는 제목의 테마전시가 진행되었으며 또 입주사 특별전에서는 각 출판사들의 우수도서 전시와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출판도시 내 문화의 거리에서는 직지체험, 책갈피 만들기,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마임공연, 그림자극, 인형극, 저글링쇼 등 볼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개막식 및 축하공연

개막식에서는 홍승표 파주시 부시장, 문화체육관광부 나기주 출판인쇄산업과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및 출판 관련 단체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잔치 개막을 선언했고 이어 석곶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그 후에는 테마 전시장을 관람했다.

홍승표 파주시 부시장은 축하인사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



든 파주출판도시는 파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출판과 독서문화가 어우러져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발진지로 2단계 출판도시조성이 완공되는 2012년이 되면 파주는 세계 책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테마전시 선보여

먼저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테마 전시 '캐릭터, 책 밖 세상으로'가 중심이 되었다. 어린이들을 매혹시킨 국내의 어린이책 속 캐릭터 35종과 이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되어졌다. 모리스 센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디 브루너의 '미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이 어린이들을 반겼으며, '오즈의 마법사' 등 작품들의 변천사도 볼 수 있었다. 국내 캐릭터로는 한병호의 '도깨비와 범벅장수', 류재수의 '노란 우산', 최숙희의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김동성의 '엄마 마중', 이영경의 '넉 점 반' 등이 캐릭터 위주로 전시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캐릭터라 할 수 있는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도 선보였으며, 민화의 대표적인 호작도를 시작으로 이우경과 권문희 등 작가들이 다양하게 표현한 호랑이 캐릭터들을 집중적으로 전시되어졌다. 또한 6·25 동란 60주년을 맞아 그 동안 어린이 책이 6·25를 어떻게 그려왔는지 조명하는 전시도 열렸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조형세계를 보여주는 전갑배의 작품 200여점을 영상 쇼로 만든 '영상 설치전',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작업한 캐릭터를 모은 '그룹 꼭두 특별전', 에이블 아티스트 광규섭의 독특한 캐릭터 그림을 전시하는 '멘님의 방' 등이 테마 전시로 준비되어졌다. 집행위원장인 권중택 보림대표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 잔치가 다른 도서전과 다른 것은 출판도시 전체를 축제로 활용한다는 것"이라며 "어린이 책에 등장

하는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사별 도서기획전 진행

이번 행사에는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뽑낼 만한 도서를 전시, 판매하는 '입주사 기획전'도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출판도시 내 문화의 거리 등지에서 인형극 '노랑머리 앤디', 연극 '똥장수 아들', 미술 '키즈매직쇼', 미임 '꿈을 그리다'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다. 캐릭터 만들기, 팝 손글씨 체험, 똑똑한 북아트 체험교실, 직지인쇄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과 지도 색칠대회와, 작가와의 만남, 글짓기 대회 등 출판도시 입주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밖에 부대전시로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책 읽는 모습을 담은 '책 읽는 사람 사진전'과 각 출판사의 어린이책 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 '어린이책 표지전', 동화책을 원화로 감상할 수 있는 '동화그림 원화전' 등이 진행되었다.

5월의 출판도시 산책

출판도시 테마산책은 5일부터 9일까지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 및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골목골목 길 따라, 출판사에서 직접 준비한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오월의 출판도시에서 체험해 볼 수 있었으며 작가와의 만남, 기념품 증정, 도서 전시 및 할인판매 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밖에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타고 책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며 즐기는 출판도시를 산책하는 전기차 투어도 진행되었으며, 보물섬 책벼룩시장에서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보물들을 함께 나누고, 기부하며 직접 느끼는 '기부와 나눔의 배움터' 행사가 진행되었다. G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